

장애는 멈추면 비용이 됩니다

경영진을 위한 한 장 요약 — 모니터링 투자 대비 효과(ROI)

1 한눈에

서버 장애는 매출 손실 · 대응 인건비 · 고객 신뢰 하락으로 이어집니다. Sentibel은 7계층(OS·네트워크·미들웨어·애플리케이션·보안·쿠버네티스·GPU)을 한 번에 보고, 문제의 근본 원인까지 추적해 복구 시간을 줄입니다.

빠른 복구

알림에 그치지 않고 7계층 인과관계로 근본 원인을 짚어, 원인 찾는 시간을 단축합니다.

인건비 절감

모니터링을 직접 구축·운영할 필요 없이 5분 설치. 전담 인력 부담을 줄입니다.

사고 예방

보안 위협·자원 임계 초과를 사전 알림. 터지기 전에 대응합니다.

2 장애 1회의 진짜 비용

다운타임 비용은 "서버가 멈춘 시간"만이 아닙니다. 아래가 함께 발생합니다.

항목	내용
매출 손실	서비스 중단 시간 x 시간당 매출(주문·결제·광고 등)
대응 인건비	원인 파악·복구에 투입되는 개발/운영 인력의 시간
고객 신뢰	이탈·환불·문의 증가, 평판 하락(정량화는 어렵지만 실재)
야간·휴일 대응	예고 없는 장애일수록 대응 비용과 피로도가 커짐

핵심은 "감지 → 원인 파악 → 복구"까지 걸리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줄이는 것이 곧 비용 절감입니다.

3 ROI 예시 (가정 기반)

아래는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이며 실제 수치는 환경마다 다릅니다. 회사의 실제 값을 넣어 계산해 보세요.

가정	값
서비스 시간당 매출(피크)	100만 원
월 장애 발생	1회
근본 원인 추적으로 단축되는 복구 시간	1시간
월 손실 회피(예시)	≈ 100만 원

이 예시에서는 장애를 한 번만 빨리 복구해도 상위 플랜(Growth 월 29만 원) 비용을 넘어서는 손실을 막습니다. 즉 모니터링 비용은 "보험"이 아니라 회수되는 투자에 가깝습니다.

※ 위 수치는 가정값입니다. 실제 매출·장애 빈도·복구 시간은 서비스마다 다르므로, 자사 데이터로 대입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Sentibel은 특정 절감액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4 직접 구축·타 도구와 비교

방식	총소유비용(TCO) 관점
오픈소스 직접 구축	도구는 무료지만 구축·운영 인건비 가 지속 발생. 7계층 통합·근본원인은 직접 구성해야 함.
해외 SaaS	기능은 넓으나 호스트·기능별 종량제(달러) 로 비용 예측이 어렵고 영어 중심.
Sentibel	원화 월 정액 (서버 수 기준)으로 예측 가능, 5분 설치, 한국어 지원, 근본원인 분석·GPU 모니터링 내장.

GPU 모니터링과 AI 근본 원인 분석은 **전 유료 플랜에 포함**입니다(별도 과금 없음).

Starter 월 7만 원

서버 5대

Growth 월 29만 원

서버 20대

Scale 월 59만 원

서버 무제한

14일 무료체험 — 서버 20대·전 기능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실제 환경에서 효과를 먼저 확인하세요.

문의 · 도입 상담: business.app0826@gmail.com · sentibel.com